



기도와 금식, 성결의 주간 | 2022

머무르다

하나님의 아람답고
능력있는 말씀에

머무르다

Abide

기도, 금식, 성결의 주간

[2022년 1월 10-14일]

© 2022 by Every Nation Churches &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사)두란노서원의 허락을 받아 '우리말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EveryNation.org/Fasting](https://www.EveryNation.org/Fasting) #ENfast2022

목 차

금식 가이드	3
나의 금식 계획	6
금식의 시작: 말씀은 양식입니다	15
첫째 날: 말씀은 씨 입니다	18
둘째 날: 말씀은 빛입니다	21
셋째 날: 말씀은 거울입니다	24
넷째 날: 말씀은 망치입니다	27
다섯째 날: 말씀은 검입니다	30
금식을 마치며: 말씀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33

금식을 위한 준비

왜 금식하는가?

금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나라들의 운명을 바꾸고, 부흥을 일으키며 성도들의 삶에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인 수단입니다. 세계 각지의 에브리네이션교회는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새해에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한 몸인 공동체로서 부흥을 기대하면서 5 일간의 금식을 합니다.

-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 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태복음 4:1-2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누가복음 4:14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영적인 힘이 필요할 것을 아셨습니다. 금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 금식은 겸손과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8:21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금식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 더 민감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2

우리가 육체의 욕구와 세상적인 방해물들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의 뜻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식은 부흥을 가져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역대하 7:14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기도와 금식으로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파괴된 나라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기도와 중보를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 금식은 우리의 신체를 회복시킵니다.

금식은 우리의 소화기관 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들은 특정한 알레르기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금식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금식을 통해 절제를 배우면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불건전한 중독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금식의 계획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 3:5

기도 - 금식 전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8 쪽-10 쪽에 당신의 신앙 목표와 당신의 가족, 친구들,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작성하십시오.

결단 - 어떤 형태의 금식을 할지, 사전에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6 쪽에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결단대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실천 - 금식 전에 적은 분량의 식사를 시작하십시오. 당과 지방의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피하십시오. 금식 주간에는 신체활동과 사교 활동을 제한하십시오. 금식하는 동안 기도의 동역자를 정하여서 그 사람에게 8 쪽에 서명하도록 하십시오.

주의: 현재 임신, 수유 중이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에게 금식 가능 여부에 관해서 문의하십시오. 완전히 금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범위와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식 하는 중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4:4

중점-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도- 교회의 기도 모임에 적어도 한 번은 참석하십시오. 금식 주간에 당신의 가족, 교회, 사역자, 국가, 학교, 선교 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충전- 식사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십시오. 많은 물을 마시고, 가능한 많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일시적으로 기력이 없어지거나 짜증이나 조바심 등이 나타날 수 있음에 대비하십시오.

금식의 종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요한 1 서 5:14-15

식사- 고행식은 서서히 섭취를 하십시오. 정상적인 식단에 몸이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일, 주스, 샐러드, 야채로 식사를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적은 분량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기도 -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시기를 신뢰하십시오.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한 해 동안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계획

첫째 날

금식의 방법:

- 물만 섭취
- 액체만 섭취
- 한끼만 먹음
- 기타 _____

기도회 참석: _____

둘째 날

금식의 방법:

- 물만 섭취
- 액체만 섭취
- 한끼만 먹음
- 기타 _____

기도회 참석: _____

셋째 날

금식의 방법:

- 물만 섭취
- 액체만 섭취
- 한끼만 먹음
- 기타 _____

기도회 참석: _____

넷째 날

금식의 방법:

- 물만 섭취
- 액체만 섭취
- 한끼만 먹음
- 기타 _____

기도회 참석: _____

다섯째 날

금식의 방법:

- 물만 섭취
- 액체만 섭취
- 한끼만 먹음
- 기타 _____

기도회 참석: _____

감사 제목

응답 받은 기도

기억에 남는 일, 응답 받은 기도, 지난 해에 얻은 교훈들...

2022 년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나의 개인적인 신앙 목표

영적인 부흥, 건강 회복, 번영과 풍성함. 너그러움

나의 가족

관계의 회복, 가정의 구원

나의 학업/ 직장

우수함. 승진

나의 사역

라이프그룹 성장,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의 구원 등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8:19

Prayer Partner 기도 동역자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름

기도 제목

나는 이렇게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의 교회

교회의 사역자들, 필요의 공급, 제자 양육 사역을 위해

나의 공동체

대학과 교육기관, 지역 정부, 전도의 기회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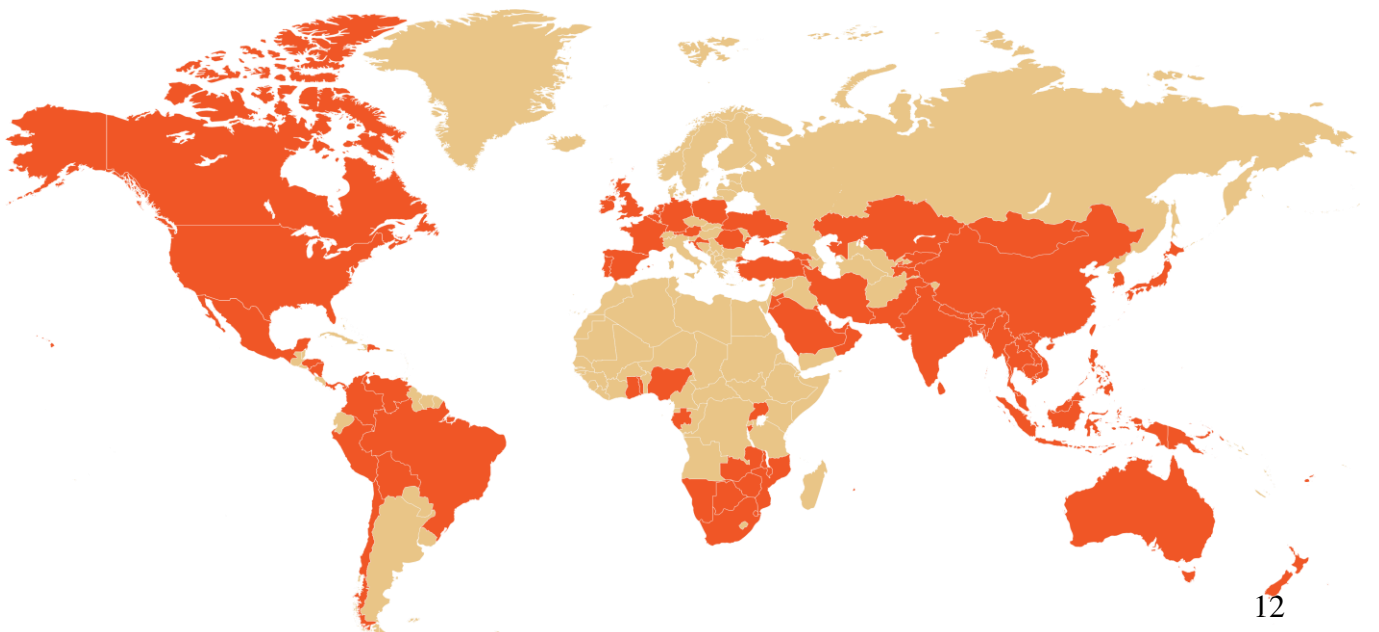
나의 나라

위정자들, 영적 부흥, 경제 성장, 평화와 질서

Every Nation 에브리네이션교회는 현재 81 개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중입니다.

에브리네이션교회는 현재까지 81 개의 나라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계속적으로 세워질
아래에 있는 나머지 114 개의 나라들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Afghanistan	Chad	Finland	Liechtenstein	Russia	Suriname
Albania	Comoros	Gambia	Lithuania	Rwanda	Sweden
Algeria	Congo	Greece	Luxembourg	Saint Kitts and Nevis	Switzerland
Andorra	Costa Rica	Grenada	Macedonia	Saint Lucia	Syria
Angola	Côte d'Ivoire	Guatemala	Madagascar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anzania
Antigua and Barbuda	Cuba	Guinea	Mali	Sao Tome and Principe	Tonga
Argentina	Cyprus	Guinea-Bissau	Malta	Senegal	Trinidad and Tobago
Azerbaijan	Czech Republic	Guyana	Marshall Islands	Serbia	Tunisia
Bahamas	Democrat Republic of the Congo	Haiti	Mauritania	Seychelles	Turkmenistan
Barbados	Denmark	Hungary	Micronesia	Slovakia	Tuvalu
Belarus	Djibouti	Iceland	Moldova	Slovenia	Uruguay
Belize	Ecuador	Iraq	Monaco	Solomon Islands	Uzbekistan
Benin	Egypt	Israel	Montenegro	Somalia	Vanuatu
Bosnia and Herzegovina	El Salvador	Italy	Morocco	South Sudan	Vatican City
Bulgaria	Equatorial Guinea	Jamaica	Nauru	Sudan	Yemen
Burkina Faso	Eritrea	Kenya	Niger		
Cabo Verde	Estonia	Kiribati	North Korea		
Cameroon	Ethiopia	Latvia	Norway		
Central African Republic		Lebanon	Palau		
		Lesotho	Palestine		
		Liberia	Paraguay		
		Libya			



전세계에 458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앞으로 88 개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네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네 소유가 되게 하리라. [시편 2:8]

제자를 삼고 현지 공동체에 속해 만남을 가지며 그 도시에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서 새로운 에브리네이션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rmenia	Iran	Portugal
Australia	Kazakhstan	Romania
Botswana	Laos	South Africa
Brazil	Malawi	Tajikistan
Cambodia	Maldives	Timor-Leste
Canada	Mexico	United Arab
China	Mongolia	Emirates
Croatia	Mozambique	United States
France	Nepal	Vietnam
Gabon	Netherlands	Zambia
Georgia	New Zealand	Zimbabwe
Honduras	Nicaragua	
India	Nigeria	
Indonesia	Panama	

**Numbers as of May 2021*

1,905 곳의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라.”
[마태복음 9:38]

대학의 캠퍼스를 통해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비전
캠퍼스를 바꾸면 결국 가족과 국가,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캠퍼스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은 대학생들이 있는 캠퍼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헌신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기도:

- 신입생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캠퍼스 교회와 선교회가 학생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는데 지혜가 있도록
- 학생들을 전도하고 다가가는 일에 대학교의 호의가 있도록
- 새로운 캠퍼스의 문이 열리도록

** Numbers as of May 2021*



금식의 시작

말씀은 '양식'입니다

신명기 8:1-20을 읽으세요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신명기 8:3]

관련 구절 : 마태복음 4:3-4; 누가복음 4:1-4; 요한복음 4:34

빵은 고대 근동의 중요한 식단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프랑스의 바삭바삭한 바게트, 인도의 누룩 없는 로티, 에티오피아의 스폰지 인제라, 멕시코의 얇은 토띠야, 필리핀의 부드러운 판데살과 각 문화권에는 고유의 빵이 있으며, 빵은 일반적인 식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8:3에서 모세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빵과 같은 음식인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풍요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 모세는 광야에서 누가 그들을 먹였는지 기억하도록 다시 알려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게 될 새로운 땅에서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 백성들이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고 또한 번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 생존을 위한 빵이 필요했듯, 생존을 위한 주님의 말씀도 필요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식에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금식기간 동안 우리 몸은 음식물이 주는 영양분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 음식을 섭취하길 원하는 우리의 모든 감각은 결국 '양식'이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이러한 식욕은,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는 비유와도 같습니다. 우리 몸이 양식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야 합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양식”으로 부르시며, 자신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진정한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와 금식의 한 주를 보내면서 날마다 배고픔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환경을 통해 당신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작년에 어떤 구절이 당신에게 용기를 주었습니까? 당신이 의지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8:3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 성경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저를 위해주시는 분임을 알려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날마다 말씀에 거하길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이 소망이 더욱 자라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영혼의 양식이며, 제 마음을 풍성히 채워 주십니다. 기도와 금식 그리고 헌신의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주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 주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씨’입니다

베드로전서 1:13-25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23]

관련 구절: 마가복음 4:3-9, 13-20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썩지 않을 씨 곧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성취)하신 좋은 소식(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소식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의 계획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않는 씨로 비유합니다. 씨가 땅에 심겨 지기 전까지는 (표면이) 건조하고 윤기가 없어서, 이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어렵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축축하고 영양이 풍부한 토양 속에서 적합한 조건이 갖춰지면, 씨의 표면에서 생명의 징후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다릴 때 (드디어) 생명이 터져 나옵니다. 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 적절한 상태로 심겨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와 같은 신앙심 안에 심겨 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의해 주의 말씀은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것이 닿는 모든 것에 생명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일부가 무미건조하게(단조롭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었거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둔하고 메마르고 죽은 부분을 어루만지는 힘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며, 영속하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때, 우리는 이 썩지 않는 씨를 뿌리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복음을 나누었습니까? 그 순간을 묵상하면서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이번 주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23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썩지 않는 씨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하시고 확신있게 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알기에 저의 상함과 혼란과 불안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제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때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 삶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제 안에 심겨진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빛' 입니다

시편 119:105-112을 읽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105]

관련 구절 : 시편 119:130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완벽한 가이드로 설명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등불은 심지가 놓여진 쪽이 좁고 가느다란 형태의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채워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등불이 어두운 길을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를 결정하고, 어려운 환경에 접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와 같은 이념과 싸우는 등 우리의 능력 밖의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마치 암흑 속에서 발을 헛디디는 것처럼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어두운 길을 밝혀줄 빛과 같은 지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이 의심없이 믿을만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한 시간이 쌓이면서 그들의 성품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인 사람의 말도 믿고 의지한다면, 오랜 시간을 통해 선하신 성품이 인정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신실한 분이시며 믿음직스러운

안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하거나 당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길을 인도하고,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주는 밝은 빛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지혜를 줍니다. 또한 당신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슬기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었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인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 말씀이 당신을 더욱 인도해 주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이 불완전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미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다정하신 분이기에 저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 인생과 저의 결정에 관심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니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 마음에 간직하여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읽고 적용할 지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거울'입니다

야고보서 1:19-25을 읽으세요.

23.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24.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야고보서 1:23-24]

관련 구절 : 로마서 2:13 ◀

야고보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시련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 시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세속적인 관습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고는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자세히 보고는 어떻게 가다가 다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머리카락이 위로 뺨친 것이 아닌지, 치아에 뭐가 묻었는지 확인하십니까? 이 과정에서, 얼굴에 커다란 것이 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지나쳐 버리시겠습니까?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야고보의 청중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속이고, 우리의 약점을 무시하고 죄에 대한 변명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 삶을 살필 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되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주저했던 적이 있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23-24

23.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24.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지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할 곳과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선물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겸손을 저에게 주세요. 성령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망치'입니다

예레미야 23:23-32을 읽으세요.

여호와와의 말이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또 바위를 조각으로 깨뜨리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예레미야 23:29]

관련 구절 : 사도행전 2:37-38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의 격동의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신실한 왕인 요시아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선지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으며,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되고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기 전 마지막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쓰라린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악하고 우상 숭배적인 길에서 돌이켜 한 분의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 즉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 헛되고 공허한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단단한 반석을 부수는 망치입니다.

우리는 "망치"라는 단어를 볼 때 그것이 못을 박는 데 사용되는 목수의 망치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맥락에서는 금속을 다듬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생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망치를 큰 힘으로 내려치면 어떤 물체를 부수고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자백하지 않는 은밀한 죄, 용서하지 않음에서 오는 비통함, 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회의로 인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것보다 소셜 미디어나 TV등에 빠지거나, 온라인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겸손과 회개로 응답할 때 완고했던 우리 마음의 죄와 비통함과 냉소를 부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망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던 어떤 고난이나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예레미야 23:29

여호와와의 말이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또 바위를 조각으로 깨뜨리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하나님, 내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주의 길에서 벗어났어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방황했는지 보여주시고 나를 다시 단단한 땅 위에 세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 대신 이 세상의 것들을 신뢰했을 때를 회개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굳은 마음을 육의 마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다섯째 날



말씀은 '검'입니다

히브리서 4:1-12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히브리서 4:12]

관련 구절 : 에베소서 6:13-17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안식일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으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여 우리도 같은 불순종에 빠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양날의 검에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칼에는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된 여러 유형의 칼날이 있습니다. 일부는 힘을 위한 것이고 다른 것은 정확성을 위한 것입니다. 양날의 예리한 검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고 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굳어진 마음을 부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능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양날의 검은 우리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동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에서부터 밖으로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과 같은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 있고 활동적인 말씀을 읽을 때 이 양날의 검이 우리를 꿰뚫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통해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까?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통한 변화를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오 주님, 저를 안팎으로 변화시키는 살아 있고 활동적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어려운 곳을 뚫을지라도 나는 그 안에 거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간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믿음을 키우고 내가 그것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해 주세요.



말씀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마태복음 7:24-27을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 7:24]

관련 구절 : 베드로전서 2:4-10

산상 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명한 설교를 다음과 같은 권면으로 마치셨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말씀의 반석 위에 당신의 인생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어 내 말을 듣지 않고 모래 위에 삶을 짓겠습니까?”

당신이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예수께서 사용하신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가 당신에게 더욱 와 닿을 것입니다. 집중호우가 단 몇 분 만에 멋진 집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기초가 튼튼한 건물만 남게 되듯,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삶을 세웠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영양분을 공급하는 양식,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 열매를 맺는 씨앗,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고 우리를 온전한 지혜로 인도하는 빛,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죄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술 수 있는 망치, 우리의 핵심을 꿰뚫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칼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금식기간 이후 당신의 실제 삶에 이 교훈을 어떻게 적용 하시겠습니까? 견고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겠습니까? 이번 주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5 일 금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생활방식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폭풍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까?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통한 변화를 보기 원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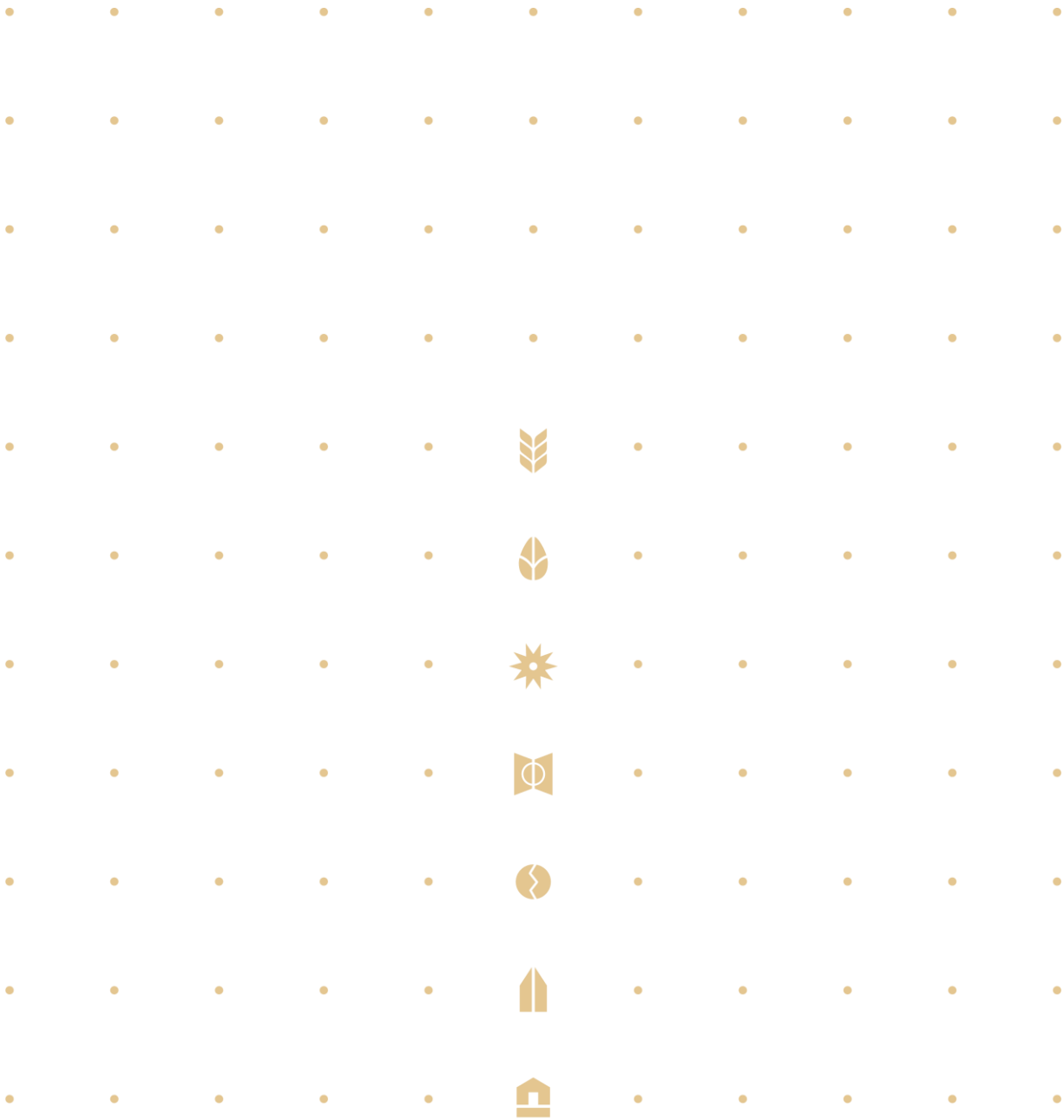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마태복음 7:24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제 삶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주님께서 언제나 신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셨고, 내 삶을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도록 도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very Nation is a global family of churches and ministries that exists to honor God by establishing Christ-centered, Spirit-empowered, socially responsible churches and campus ministries in every nation.

#ENFAST2022
EVERY.NATION.ORG/FASTING

